

김재경사진전 「mute」

일시 / 4월12일~22일

장소 / 인데코화랑(서울 인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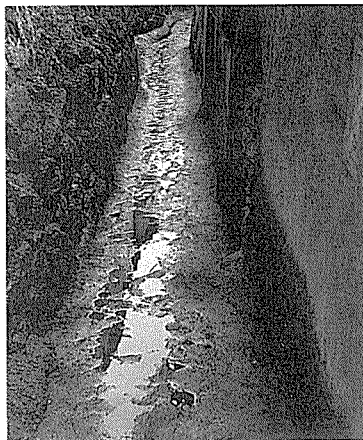
김재경

- 1958 충남 광천 출생
- 1981~89 현상소(수동기사)
- 1983 동국대 전산원 수석
- 1990~92 플러스 문화사(사진기자)
- 개인전
- 1994 삼성 포토 갤러리 '건축사진'
- 1998 인데코 화랑 '자연과 건축'
- 2000 인데코 화랑 'mute'
- 그룹전
- 1995 삼성 포토 갤러리 '건축사진'
- 1998 동아 갤러리 '땅, 집, 공간'
- 1998 hereford art gallery 'nature and architecture', herefordshire photo festival 1998 England
- 1999 중구문화원 '도시와 건축'
- 사진집
- 1998 김재경 사진 '자연과 건축', 출판기획 그림
- 2000 김재경 사진 'mute', 출판기획 그림
- 출판협력
- 1996 '이남규 유리화집', 분도 출판사
- 1999 '김영섭 건축작품집', 나남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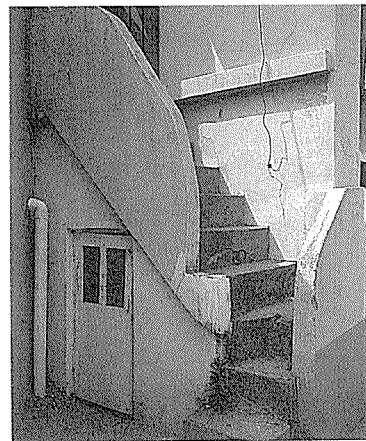
김용동

나는 김재경의 사진을 잘 알지 못한다. 아니 그 보다 사진가 김재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이다. 면식을 가진 지야 그리 짧지 않지만 작업을 같이 한 경우도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불어 함께 보낸 시간도 별로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니므로 실제로 그의 살아온 흔적이나 배경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적다는 표현이다. 실제 그랬다. 그와 만나 나눈 이야기라고 해야 사진전에 참가한다거나 책을 만들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그가 몇 년 전 전시회를 열고 펴낸 '자연과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에서 옛건축과 그것을 둘러싸거나 그것에 둘러싸인 외부공간의 느낌이 매우 시적이며 풍요롭다고 생각하였고, 그 책의 말미에 기재된 몇 줄의 개인적인 기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가 찾아와 한 묶음의 흑백 프린트를 내밀고 전시와 책을 출판할 것이라 했다. 이번에는 서울의 여러 달동네의 골목 풍경을 담은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진은 한남동과 옥수동, 삼선동과 하월곡동, 봉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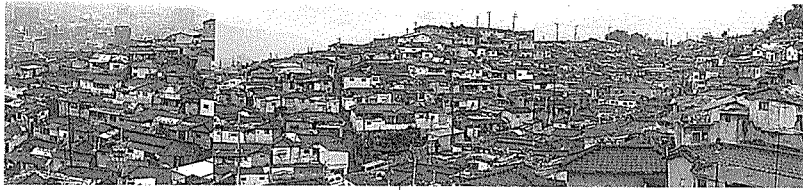


하월곡동

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촬영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나 작업에서나 특별한 얽힘이 없던 그의 마음과 생각을 몇 장의 사진으로 읽어보는 것도 오히려 선입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왜 내게 굳이 책에 실을 글을 부탁했는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가 건네준 사진을 처음 본 순간에게해에 떠있는 산토리니 섬의 하얀 벽과 꾸불꾸불 꺾여서 가파른 산등성이로 오르는 길이 떠올랐다. 그 섬은 여름 한낮의 찌는 태양속에서 지중해의 푸른 물과 하늘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오래 전부터 나와 내 주변의 동료 건축가들을 매료시켰던 책이 있었다. 마이런 골드핑거가 지중해 주변의 마을과 섬들의 풍경을 담은 '빌리지 인 더 선 village in the sun'이라는 사진 집이다. 더구나 건축가 루이스 칸이 의미 있는 서문을 썼다. 이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감동시켰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주인공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산토리니 섬으로 여행하였고 이번 여름에는 모로코의 흙 집 마을을 찾았다. 골드핑거의 눈으로 포착된 낯선 풍경은 현대 서구 건축의 원형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잊으려 했던 전통적인 공간에 더 가까웠다. 일찍이 그는 지중해 도시와 마을에서 '건축가 없이 만들어 낸 인간의 지혜와 삶이 만들어 낸 순수한 공간을 발견해 낸 것이다. 건축가들



삼선동



하월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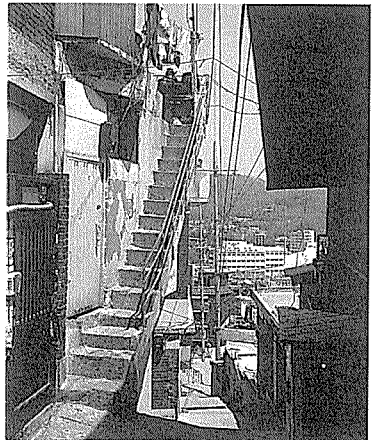
이 아직도 산동네, 달동네를 서성거리며 잊혀져 가는 공간의 본질을, 그 보다도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의 자연스러움을 찾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김재경이 응시하는 골목에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지형의 문제로 가파른 계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 계단은 좁은 골목의 뿔려진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빛으로 미묘한 리듬을 이루고 위로 좁아 지면서 사라져 간다. 투박한 돌이나 거칠게 비빈 시멘트와 물로 빛은 경사진 바닥에서 띠 모양의 빛의 변화가 드러난다. 달동네의 담은 따로 있는 경계가 아니라 집체의 벽이다. 지난달 찾아갔던 모로코의 페즈가 그랬다. 인구 20만이 모여 산다는 페즈 알 바리(올드 타운)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길이나 광장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 '세계 최대의 미로'라는 수식어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현지인조차도 자기동네 밖에서는 길을 잃는다는 페즈는 끝없이 이어지듯 하다가도 막혀버리고 좁은 길에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비슷비슷한 표정의 벽은 경계가 없이 연속되고 때로는 골목을 건너 다른 집의 상부로 얹혀있다. 수평과 수직으로 페즈는 한 덩어리다. 페즈의 미로

는 죽음과 삶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간지스 강가의 바라나시와도 달랐다. 그에 비하면 서울의 달동네는 오히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산 마을에 가깝다. 길은 좁고 지형을 따라 변화하지만 미로의 느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얹힌 길이요, 길 마당이다. 집으로 구획된 공간의 나머지가 아니라 안과 밖을 엮는 공간 장치요, 내부의 삶이 바깥으로 새어 나와 공명하는 장치다. 김재경이 포착한 빛이나 물체는 이 울림을 응시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의 사진 프레임 안의 공간은 비어있다. 너무 조용하다. 오직 계단이나 그저 무심한 담 속의 개구부, 빨래뿐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와 삶의 미묘한 흔적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의 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주제인 'mute'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김재경이 '1999년의 서울'에서 응시한 것은 바로 이 소리 없는 움직임과 흔적이리라. 그래서 오늘도 그는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산 언덕길을 오르고 계단이 있는 좁은 골목을 서성대고 있을 것이다.

(조성룡/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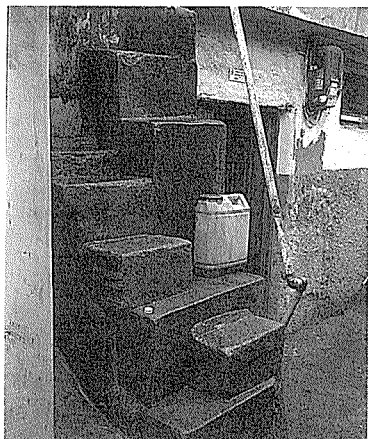
하월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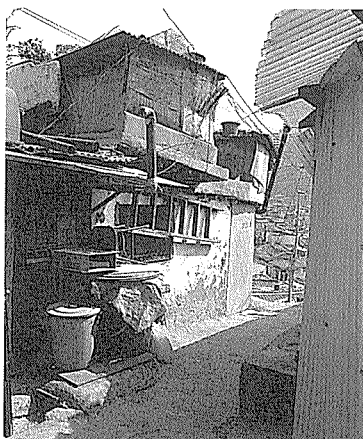
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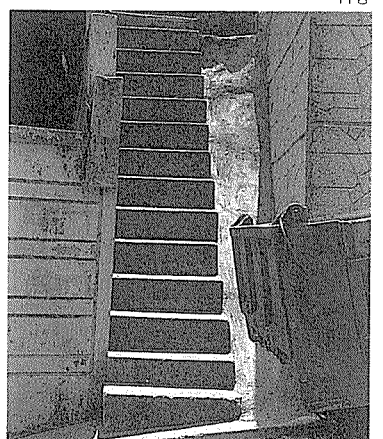
목수동



하월곡동



봉천3동



목수동